

귀한손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 250억원에 손흥민 영입 추진 독일 매체 “토트넘 감독 기대 커 떠나기 쉽지 않을 것”

독일 분데스리가의 볼프스부르크가 손흥민(도트넘)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스포츠 매체는 볼프스부르크가 이적료 1720만 파운드(약 250억원) 정도로 손흥민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프스부르크는 팀의 스트라이커 바스

도스트의 이적 여부와는 상관없이 손흥민 영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스포츠 매체는 덧붙였다. 또한 손흥민 영입을 추진하는 구단이 볼프스부르크 외에도 더 있다고 스포츠 매체는 보도했다. 다른 구단명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스포츠 매체는 “토트넘의 마우

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가는 기대가 크다”며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토트넘을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5월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의 활약에 실망해 이적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한 몇몇 영국 언론의 보도와 반대되는 전망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2200만 파운드(약 400억원)의 이적료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8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비주류



현지 언론 “류현진, 다저스 미래 전력 포함 힘들다” 팔꿈치 통증에 60일 부상자명단...기약없는 재할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을 향후 전력 구상에 포함하기 힘들다는 보도가 미국 현지에서 나왔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4일(한국시간) ‘류현진이 다시 마운드에 설 수 있을까’라는 팬 질문에 “다저스가 향후 팀을 구성할 때 류현진을 믿음직한 전력에 포함하는 건 힘들다”라고 답했다.

류현진은 2013·2014년 팀의 3선발로 믿음직한 선수 중 하나였지만, 작년 어깨 수술 이후에는 팀 전력의 ‘변수’가 되었다. 신문은 “류현진이 아직 은퇴한 건 아니다”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수술을 받은 뒤 올해(원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류현진은 2015년 어깨 관절와순 수술을 받은 뒤 올 초부터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기 시작했다.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전반기 막판인 지난달 8일에서야 복귀전을 치렀다. 상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였지만, 류현진은 4.2이닝 8피안타(1피홈런) 2볼넷 4탈삼진 6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다. 다음 등판을 준비하던 류현진은 이번에는 왼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고, 지난달 20일에는 부상자명단에 올라가면서 다시 기약 없는 재할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마당쇠’ 박준표의 관찰학습

선발·불펜 오가며 분전 “임창용 선배는 ‘살아있는 교과서’”



KIA 투수 박준표에게는 ‘보는 게 공부’다. 박준표는 8월 KIA 불펜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마운드를 오르고 내리고 있다. 24일 NC와의 경기 전까지 박준표는 8월 팀이 치른 18경기에서 11차례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넥센원정에서는 임시 선발로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르는 하는 등 불펜의 마당쇠로 분전을 하고 있다. 힘든 8월, 부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많은 경기에 나오고 싶다”며 박준표는 밝은 표정으로 경기장을 오간다. 야구의 카를 키우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 박준표다. 주어진 역할을 매번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주로 등판을 하는 박준표는 “무조건 주자를 막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며 “안 좋았을 때를 돌아보면 생각이 많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로 못 던지면서 장타를 많이 허용했던 것 같다. 하나 보여주고 승부를 하려다가 맞기도 했는데 힘으로 공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를 통해 노하우를 더하고 있는 박준표는 팔을 내려던지는 사이드 암이다. 정통파 투수들과는 기본 매커니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앞서 박준표는 타이거즈의 잠수함 계보를 잇는 유동훈 투수코치의 입을 통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지금은 눈으로 배우고 있다. 대선배 임창용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보고, 배

우고 있다. 박준표에게 임창용은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이다. 임창용은 한국과 미국·일본 무대를 거치면서 쌓은 경험과 철저한 몸관리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복귀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50km가 넘는 벡지구가 살아나면서 고민 많은 불펜에서 베테랑의 역투를 선보이고 있다. 박준표는 “선배님이 운동을 하고 공을 던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공부가 된다. 피칭을 할 때 몸을 쓰는 것과 유연성 등은 정말 육심 난다. 살을 조금 뺐 생각이 있다. 또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는 승부를 배우고 싶다. 자신있게 내 공을 던지고 승부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최종예선 앞두고 기성용·이청용 ‘몸풀기’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1.2차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이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EFL) 경기에서 출전에 컨디션 조절했다. 기성용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피터버러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나와 전·후반 90분을 풀타임 출전했다.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다. 경기는 스완지시티가 3-1로 이겼다. 이청용도 경기를 뛰었다. 그는 같은 날 영국 크로이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블랙풀과 경기에서 후반 16분 제임스 맥아더를 대신해 교체 출전했다. 이청용 역시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2-0으로 이겼다. 두 선수는 오는 29일 파주 축구대표팀 훈련센터(NFC)에 입소해 1일 서울월드

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중국과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을 준비한다. 6일엔 중국 마카오에서 시리아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두 선수는 시리아전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한편 시리아와 원정경기는 레바논에서 마카오로 장소가 변경됐다. 당초 시리아의 내전 문제로 중립국에서 경기를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경기 개최장소는 시리아와 가까운 레바논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23일 개최장소가 다시 바뀌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레바논의 경기장 시설 및 안전문제가 대두됐고, 시리아는 개최지를 마카오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결국, 아시아축구연맹은 마카오 축구협회와 협의해 개최지를 확정했다. 축구대표팀엔 호재다. 레바논과 한국의 시차는 6시간이다. 이동 거리도 멀다. 그러나 마카오는 시차가 단 1시간뿐이다. 이동 거리도 비교적 짧다. 서아시아의 무더운 날씨 등 환경 문제도 피할 수 있다. /연합뉴스